64. [fn사설] 롯데그룹, 제2의 포스코 수사 안돼야

비자금 등 비리 파헤치되 가급적 빨리 수사 끝내길

서울중앙지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에 따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캐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휴일에도 모두 출근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한편 본사와 계열사의 재무.회계 담당 임직원들을 소환해 자금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1t 트럭 10여대 분량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롯데는 1967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자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납품업체, 하청업체 등에서 리베이트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귀띔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전 파악한 롯데그룹의 배임.횡령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비자금으로 조성된 액수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국내 5위 재벌그룹이 수사를 받게 되자 재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롯데그룹은 초비상이 걸렸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미열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7일 국제스키연맹 총회 참석차 출국해 멕시코 칸쿤에 머무르고 있다. 신 회장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 인허가를 둘러싸고 전 정권 개입설이 돌기도 했다. 표적수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 수사가 포스코 수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포스코 수사는 8개월을 끌었지만, 정준양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포스코의 대외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 롯데그룹 수사는 포스코보다 더 끌 수도 있다. 지분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로 기업 사정 정국이 조성되고,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초부터 롯데 말고도 몇몇 기업이 사정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소문이다. 재계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롯데가 추진하던 새 사업의 성장동력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당부한다.